





우리 당원사에 커다란 승리로 아로새겨질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총경의 70돐전투의 철야집군을 힘있게 다고쳐가고있는 우리 인민 모두가 승리를 대한 확신에 넘치고 필승의 기상을 뻗쳐가고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풀길은 훌해의 첫 계 군집에서 수소난시립성공과 같은 민족사적 장기들이 준 길지와 자부심이 충만되어있다.

위대한 당의 행도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거세한 전군을 막을 뿐은 그 어디에도 없다!

맞벌이나가는 광활한 경제로 혁명과 진실을 전진시켜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빙도를 및 나에게 이어 자랑한 천길을 조국땅우에 절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천만군민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건설과 해부 무역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저히 구현하여 모신 경제와 국방방진로선의 계승입니다! 심합발전입니다!》

국역이 강하게 자자나파, 자기 민족을 세워칠의 모친 풍파에서도 지켜낼수 있지만 국력이 약하면 포악한 제국주의 강도들에게 미히 우고말되는것이 지난날이나 아니면 오늘도 변하지 않는 역사의 전리이다.

우리 조국이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의 힘에 저항하면서 경제건설과 체제속에서도 머리를 수그렸던 일은 당시 국방방진로선을 놓고 미쳤던 강도를 행사하는 불례의 강국으로 온전히 고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1960년대에 우리 당이 세시한 병진로선을 떠나 생각할수 없고 그 계승발전을 떠나 말할수 없다.

걸고 순란한 조전과 경쟁속에서 이 끝난것이 아니었다.

## 불쾌의 당, 위대한 경도

# 만능의 보검, 주체적인 병진로선으로 영광떨친 맥승의 역사

역사의 교훈을 남긴 카리브해위기 가 있은 직후 기고안장에서 이제는 남조선에 수많은 현대적인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면서 우리 유통화국을 대하는 침략전쟁학동에 충분하였다.

정세는 이제 새 전쟁도발학동에 대처할 경정적인 대책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사실 그때 준엄한 정세의 요구에 립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한결같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건설을 위해 미루는 한이 있어도 국방강화로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국방력강화도 중요하지만 경제건설을 놓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근본비의를 저버리고 경제건설에 만족할 수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여 국방력만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을 중단할수도 없다고 보았다.

인류의 정세를 예비하게 분석하신 후에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심하고 그에 앞서 전원회의에 제기한 새로운 경제국방방진로선을 놓고 미처온 토의를 진행하였다.

어느날 심중한 단계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의견을 들으셨다.

일군들은 몸은 실 채 했지만, 하지 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경제국방방진로선으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살리는 생명선이기에 그들은 해야 합니라고 대답을 했었다.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짹상을 치웠다.

만고의 전설적영광 우리 수령님께서는 다시 한번 원주민에게 철주를 내

요, 허리띠를! 일군들은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 국방건설에 둘러쳐야 할 지출예문에 어려워지게 될 원민들의 생활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자리잡고있음을 알게 되었다.

혁명부평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이민위원회를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선도 육수며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혁명의 빠른 시기, 배 단체마다 새로운 희생과 정책을 내놓으실 때 우리 수령님의 마음속에서 언제 한번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떠난 것처럼 있었던 것이다.

회의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짖었었다. 잠시 후 한 항일부사가 천천히 일어나 그때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뜨거워지는

심정을 애써 누르시며 다른 일군들에게 동무들은 어떤가고 또다시 물으셨다.

회의에 참가했던 일군들도 모두 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되어 주제 5 (1968)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는 경제전진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때 한방이 제시되었다. 〈한손에는 품, 다른 한손에는 박자! 품과 박자를 끊고 전환시키시며 다른 일군들에 대한 일대 양향을 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

주제 5 (1968)년 6월 어느 날 통성기계봉장(당시)의 조동계급파자리를 깔아하시고 혁명로선의 혁명적

분장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로선 모든 단위에서 배이상의 속도로 내달릴 때에야만 빛을 냄수 있

는 매우 어려운 조건으로 하시면서

내리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군들이

전체를 끊어가면서 경제전진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때 한방이 제시되었다. 〈한손에는 품, 다른 한손에는 박자! 품과 박자를 끊고 전환시키시며 다른 일군들에 대한 일대 양향을 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

의 동요없이 역사의 폭풍을 맞았아

나가시며 완강한 풍격정신으로 승리

를 이룩하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내 일생의 흥작지 향은 방어가 아

니라 공격이라고 할수 있다. 나는 혁

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오늘에 이

르기까지 끝았거나가는 우리 군대와

막으려는 자들을 주호도 용서하지 않

는 막두산령의 기질을 꾸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혁명적고조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공격정신이 강한 사람, 가야 할 길이 명백한 사람은 주춤거리는 법이 없다.

통성의 조동계급이 아닌 전제 군대와 일민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한손에는 품, 다른 손에는 낫과 치마를 들고 혁명과 건설을 풀기자

경찰의 명장 김일성대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내용만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국방방진로선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하여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으로 더욱 성과를 달성되었다.

세계사회주의체제가 성과되고 세계 혁명의 현대기민다에 승리만을 기록한 우리 당의 글화입니다. 무역전쟁, 신경으로 대전을 했던 우리 조국은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인공지구와 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세계의 상봉에 솟아올랐다.

역사의 둘째를 맞았거나가며 조선 혁명의 현대기민다에 승리만을 기록한 우리 당의 글화입니다. 무역전쟁, 신경으로 대전을 했던 우리 조국은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인공지구와 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세계의 상봉에 솟아올랐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오늘도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통성의 조동계급을 찾으시어 그를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혁명의 풍랑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일되는 정의미단의 징이 있다.

우리 조선족은 그 유래부터 이





